

“내년 세계 경제 팬데믹 버금가는 부진”

블룸버그 성장률 2.4% 전망 미국 금리 5%까지 올려 유지 월가도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

내년도 각국이 경기후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성장 추정치인 3.2%보다 낮으며, 세계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1993년 이후 최저치이다.

다만 국가별로는 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내년을 경기후퇴와 함께 시작하고 미국은 경기후퇴 속에 내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킷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관측했다.

반면 중국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와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내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통화정책도 내년 부더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속 우려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뒤 2024년 1분기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면서 기준금리 인상 고점도 낮아져 내년 말쯤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당국이 경기부양 바람과 위안화 약세 우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존슨은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가 최고 거물들도 잇따라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팬데믹 경기부양으로 소비자들이 갖게 된 1조5천억달러(약 1천986조원)의 초과 저축이 “내년 중반쯤 바닥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제를 탈선시키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가벼운 또는 강한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내년 미국이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군의 날 영상 촬영하는 젤렌스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군의 날인 6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슬로반스크 인근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수출 K2전차·K9자주포 폴란드 상륙

폴란드 대통령 참석해 기념행사

‘국산 명품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상륙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과 엄동환 한국 방위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물량 인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된 초도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다.

양국 간 1차 실행계약이 체결된 8월 기준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신속히 도착한 것으로,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지원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자국 전력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최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매서운 추위에도 두다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초도물량 도착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군이 이 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상하이 전철역 코로나 검사하는 방역요원들 중국 상하이 방역요원들이 6일(현지시간) 시내 훙차오 전철역에 도착한 승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법원, 사우디 빈 살만에 ‘카슈끄지 살해 배후’ 면죄부

정부수반 외교면책특권 인정

미국 연방법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각하했다.

6일(현지시간) AP·AFP·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배이즈 판사는 행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각하했다.

배이즈 판사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원고 측 주장이 믿을만하며 설득력과 근거가 있다면서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외국 지도자로서 면책특권을 지닌다는 미국 행정부

의 공식 입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배이즈 판사로부터 의견 표명을 요청받고 시한을 내준 11월 17일 이런 입장을 공식 문서로 법원에 보였다.

숨진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자주 썼던 인물이다.

그는 혼인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 시간 약속을 잡고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살해됐다.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시민단체 등은 살해 공작의 배후로 의심되는 무함마드 왕세자 등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년 미국 법원에 냈다.

무함마드 왕세자 측은 카슈끄지 살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부하들이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었고 살해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보기관의 결론을 작년 2월 공표해 사우디와 외교 갈등을 빚었다가 올해 여름부터는 국제유가 등 문제를 계기로 사우디 측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행정부가 11월 17일 법원에 통보한 공식 입장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 정부 수반인 총리(장관회의 의장)가 된 것은 올해 9월 27일로, 사건 발생과 소송 제기보다 몇 년 뒤였다. 이 자리는 전통적으로 국왕 본인 또는 왕세자가 맡는다.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2025년 석탄 제치고 최대 전력원

국제에너지기구 전망

신재생 에너지가 올해 급속도로 확산해 2025년까지는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EA는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게 되면서 수요가 전례 없이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새롭게 확보되는 에너지원의 90%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5년간 추가될 신재생 에너지 용량은 총

2천400기가와트(GW)로, 현재 중국의 전체 발전 용량과 맞먹는다고 IEA는 설명했다.

이는 작년 IEA가 예측한 2022-2027년 신재생 에너지 확충 용량에 비해 30% 늘어나는 것이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7년까지 거의 3배로 증가하고 풍력 발전 용량은 2배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급속한 확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묶는다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IEA는 전망했다.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은 “원래 신재생 에너지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확보에 주력하게 하면서 이 속도를 훨씬 더 높여놓았다”라고 말했다.

비를 사무총장은 “향후 5년간 전세계에서 추가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앞선 20년간 확보된 양과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